EOTS 4(2008) 141-164

구약신학의 역사성과 문예성

-복음주의 관점에서 본 구약신학 방법론-

임 용 섭
총신대학교

I. 서론

"구약신학"을 간략히 정의한다면 구약성경 전반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 즉 하나님에 대한 혹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관계된 삶의 원리와 규범을 구약성경 안에서 총체적인 시각으로 찾는 것이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포로후기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역사를 토대로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이해'를 배제하고 구약신학을 논할 수 없다.[2] 다른 한편, 구약 성경은 여러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구약신학자는 그 문예성 즉 본문에 대한 '문학

1 '구약신학'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구약신학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며, 여기에 다양한 해석학적 문제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참고, 김정준, "구약신학의 최근 동향," 「신학사상」 12[1976], 8-9). 구약신학의 정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존 세일해머(John H. Sailhamer), 『구약신학개론: 정경적 접근』 김진섭 역 (서울: 솔로몬, 2003), 19-44을 참고하라.

2 모세 오경과 역사서 등 주로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산문체의 서사(narrative)들은 물론이거니와 선지서 역시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시가서의 경우 다른 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하지만 역사와 완전히 동떨어진 초현실적인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적 이해' 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3] 이와 같이 구약성경은 본질적으로 역사적 특성과 문학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자의 견해로는 바람직한 신학적 작업을 위해서 먼저 그 가치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복음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역사성과 문예성에 관련된 구약신학의 논의들을 이 논문에서 개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4] 그런데 이미 구약신학 연구의 역사를 다룬 책과 논문이 많이 출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양한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5] 여기에서 필자의 의도는 구약신학 연구 역사에 있어서 두드러진 '역사' 와 '문학' 그리고 '신학' 의 가치와 관련하여 각각 대표적인 주장과 방법을 살펴보면서 상호간의 차이와 공통점을 분석하여 복음주의적 구약신학의 원리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본론

1. 역사성: 역사 중심 연구 (History-centered Approaches)

구약신학은 사실상 성경의 '역사적 특성' 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8세기말 가블러(J. P. Gabler)가 성경 연구의 역사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성경신학이 기존의 교의학으로부터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6] 이전의 전통적인 성경 연구는 성경을 단지 교

3 여기에서 '문예성' 이란 단지 좁은 의미에서 예술적인 문학 기법뿐만이 아니라 언어와 문법을 포함하여 의미 전달을 위한 본문의 문학적 수단과 구성까지 포함한다.

4 필자가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복음주의' 는 성경의 영감(Inspiration)과 권위 및 무오성을 인정하고 이를 해석학적 전제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의미한다.

5 구약신학 연구의 역사를 다룬 책으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프레드릭 C. 프루스너, 존 H. 헤이스(Frederick C. Prussner and John H. Hays), 『구약성서신학사』장일선 역 (서울: 나눔사, 1991); 게하르드 하젤 (Gerhard F. Hasel), 『구약신학: 현대 논쟁의 기본 이슈들』 (서울: 엠마오, 1993). 프루스너 헤이스의 책은 주로 시대별로 구약신학의 발전 역사를 다루었고, 하젤은 제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학자들의 이론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6 Johann P. Gabler, "An Oration on the Proper Distinction between Biblical and Dogmatic Theology and the Specific Objectives of Each," in *The Flowering of Old Testament Theology: A*

리의 근거를 담은 증거 본문(proof text)의 출처로 다루었고 따라서 구약 연구는 단지 교의학의 보조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7] 이와 같은 전통적인 연구는 구약성경에서 오직 신학적 가치를 찾는데 치중한 것이었다.

그런데 가블러는 독일 알트도르프(Altdorf) 대학의 교수 취임 강연(1787)에서 성경신학과 교의학의 구분을 주장했다. 즉 한편으로 성경신학은 '신적인 일들에 대한 성경 저자들의 생각을 전하는 것' 으로서 역사적인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교의학은 신학자가 신적인 것들에 대해 철학적으로 사고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교의학은 순수(pure) 성경신학으로서 성경 전체에 흩어진 여러 주제들을 조직화하여 신학적 교훈이나 교리로 정립하는 규범적(normative)인 학문이고, 반면에 성경신학은 참(true) 성경신학으로서 성경 계시의 전개 과정 및 상호관계를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묘사적(descriptive)인 학문이라는 것이다.[8]

교의학 / 순수(Pure) 성경신학 교훈적–규범적(Normative)	성경신학 / 참(True) 성경신학 역사적–묘사적(Descriptive)
성경 전체에 흩어진 여러 주제들을 조직화하여 신학적인 교훈/교리 정립	성경 계시/신학적 주제의 전개 과정 및 상호관계를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
$Text_1$ a_1 ↘ $Text_2$ a_2 → 교리 A $Text_3$ a_3 ↗	주제 A a_1 → a_2 → a_3 $Time_1$ $Time_2$ $Time_3$

Reader in Twentieth-Century Old Testament Theology, 1930-1990, ed. Ben C. Ollenburger et al. (Winona Lake: Eisenbrauns, 1992), 495-96.

7 구약을 증거 본문의 출처로 다루는 전통적 혹은 구약신학의 발전 초기 단계의 연구에 대한 소개와 평가에 대해서는 하젤, 『구약신학』, 30-36을 참조하라. 전통적인 교의학적 구약연구 외에도 초기의 성경신학자들 가운데 젤린(E. Sellin; 1933)이나 쾰러(L. Kohler; 1936) 등은 여전히 신론, 인간론, 심판 및 구원론 등 전통적인 교의학 체계를 따라 구약 신학을 정립하려 했다 (참고. 프루스너 & 헤이스, 『구약성서신학사』, 217-20).

8 Ibid., 86-88.

가블러 자신이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 구체적인 성경신학을 제시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학자들은 구약성경에서 오로지 신학적 규범만을 찾고자 했던 전통적인 교의학 방법과 다르게 성경의 역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역사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연구한 유형들 중에 세 가지 실례를 살펴보자.

1) 종교사학파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가블러 이후 규범적인 교의학과 달리 역사적인 구약 신학을 정립하려는 시도는 19세기에 이르러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구약성경에 반영된 이스라엘의 종교적 발전 현상을 규명하려는 종교사학파가 구약 신학의 주류로 등장했다. 대표적인 종교사학파 학자로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서문』(*Prolegomena sur Geschichte Israels*, 1787)을 펴낸 벨하우젠(J. Wellhausen)을 꼽을 수 있다.[9] 여기에서 벨하우젠은 구약신학 연구의 목적을 '이스라엘 종교사를 다른 나라의 종교사와 비교하면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하였고 또한 제도화하였는가를 고찰해 내는 것' 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는 구약 성경과 함께 고대 근동의 여러 문헌들을 비교 연구하면서 구약성경의 종교를 현대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하려고 했다. 그래서 벨하우젠은 이스라엘 종교가 원시적인 정령숭배의 형태로 시작해서, 다신교, 단일신교(Henotheism)의 단계를 거쳤으며,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유일신교(Monotheism)로 귀착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은 벨하우젠의 연구에 있어서 구약성경은 다른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의 다양한 시대적 자료들의 수집체로서 단지 비평적 역사 연구의 대상이었다. 바꿔 말하면 전통적인 교의학이 성경을 교리 증명을 위한 증

9 하젤은 벨하우젠의 책이 출판된 1878년을 "구약신학에 대한 종교사적 접근이 승리를 거두기 시작한 분기점"이라고 본다(『구약신학』, 36). 렌토르프(Rolf Rendtorff) 역시 벨하우젠에 구약신학 연구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연 학자로 평가한다 ("The Paradigm Is Changing: Hopes and Fears," *BI* 1 (1993): 34.

거 자료로만 사용했던 것처럼, 벨하우젠은 구약 성경을 단지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발전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역사적 자료로만 보았다. 그러므로 성경의 통일성이나 본문의 유기적 연결성은 그의 연구 대상이 아니었고, 성경의 규범적-교훈적 의의 혹은 신학적 가치 역시 그의 관심 밖이었다. 한마디로 벨하우젠의 방법론은 전적으로 역사 연구에 치우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20세기 비평주의 구약 연구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 후 벨하우젠의 방법과 유사하게 이스라엘 종교의 발전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역사주의(historicism)의 전횡은 오히려 구약신학을 크게 위축시켰다.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성경 신학이 시작했지만, 지나친 역사주의에 의해 오히려 구약신학 자체가 쇠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종교사학파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역사적이면서 신학적인 구약신학을 저술하기 위한 시도가 다음에서 보게 될 폰 라트의 전승사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2) 전승사학파 (History of Israel's Traditions)

폰 라트의 신학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1920년대 종교사학파의 역사주의에 의해 잠식된 구약연구의 신학적 의의를 다시 찾기 위해 일어난 아이스펠트(Otto Eissfeldt)와 아이히로트(Walther Eichrodt)의 논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논쟁의 핵심이 바로 역사와 신학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폰 라트의 신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스펠트(1926)는 '역사적 고찰 방식' 과 '신학적 고찰 방식' 이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약 신학의 과제는 이스라엘 종교사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10] 즉 역사 연구는 실제 일어난 사건의 기원

10 Otto Eissfeldt, "Israelitisch-jüdische Religionsgeschichte und alttestamentliche Theologie," *ZAW* 44 (1926): 1-12; idem, "이스라엘과 유다의 종교 역사와 구약신학," 『20세기 구약신학의 주요 인물들』 강성열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0), 42-56. 참고, James D. Smart, "The Death and Rebirth of Old Testament Theology," *JR* 23 (1943): 1-11, 125-36.

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지성적 이해를 통해 획득하는 것이지만, 영원한 실체를 깨닫는 것은 오직 종교적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구약성서 신학 연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아이히로트(1929)는 종교사와 신학을 분리하는 아이스펠트의 이분법이 불가하다고 반박하고, 구약신학의 과제는 역사적이며 동시에 신학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11] 즉 그의 구약신학 방법론은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모든 시대에 규범과 진리가 되는 본질적인 것들을 찾고, 나아가 이를 조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아이히로트는 '계약(covenant)이라는 개념이 구약 성경 전체의 신학을 포괄하는 중심개념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구약신학서』(*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3 vols., 1933-1939)를 저술했다.[12]

요약하면 아이스펠트는 성경신학을 역사적인 것으로 정의했던 가블러의 제안을 뒤집으며 구약신학이 비역사적인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사적인 것을 지성적 이해로 구분한 것 역시 교훈적이고 규범적인 것 즉 신학적 의의를 찾는 것은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순수성경신학(즉 교의학)의 문제라고 보는 가블러의 입장과도 대조된다. 이에 반해 아이히로트는 역사적 연구 방법을 성경신학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교의학적 주제를 성경신학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을 반대하며 구약신학은 여전히 신학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아이히로트의 주장은 가블러 이후 특히 종교사학파의 극단적인 역사주의에 대한 반동이었고, 이점에서 그의 책이 출판되기 시작한 1933년은 구약성경신학의 부흥 혹은 재생이 일어난 시점으로 인정받는다.[13]

---

11 Walther Eichrodt, "Hat die alttestamentliche Theologie noch selbständige Bedeutung innerhalb der alttestamentlichen Wissenschaft?" *ZAW* 47(1929): 83-91; idem, "구약신학은 아직도 구약학에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20세기 구약신학의 주요 인물들』, 57-69.

12 Idem,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rans. J. A. Baker, 2 vol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1).

13 프루스너 & 헤이스는 1933년 아이히로트의 출판으로 구약신학의 본격적인 문이 열렸다고 평가한다(『구약성서신학사』, 211).

Otto Eissfeldt	Walther Eichrodt
역사적 고찰 방식과 신학적 고찰 방식 분리 구약 신학 과제는 이스라엘 종교사와 별개	구약 신학 과제(=역사적): 모든 시대에 진리가 되는 구약 종교의 본질을 밝히는 것 (계약)

그러나 아이히로트의 구약신학 서술방식은 성경신학적이지 않고 오히려 조직신학에 가까웠다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역사적 방법은 역사적 발전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의 단면(cross-cut)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조직적으로 종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신학은 발전의 직선을 그리고, 조직신학은 원을 그린다"고 함으로써 성경신학의 조직신학의 차이를 잘 지적한 보스(Geerhardus Vos)의 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14] 보스는 이 구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제시한다.

> [성경신학]은 성경의 자료를 구성하는 원리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이라는 점에서 조직신학과 다르다. 조직신학은 성경을 하나의 총체적 완성체(completed whole)로 간주하고 그 전체의 가르침을 순차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제시하는데 힘쓰는 반면, 성경신학은 그 자료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루되 특별계시의 유기적인 성장 혹은 진리들의 발전(development of truths)을 보이려고 한다.[15]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비록 아이히로트는 신학과 역사의 통합을 말하고 있지만 그의 구약성경신학은 역사적 역동성을 간과하고 있다.[16] 이와 같은 아이히로트의 주장은 구약성경신학의 부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폰 라트(Gerhard von Rad)의 전승사연구에 의해 크게 약화되었다

14 Geerhardus Vos, *Preface to the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48), 15-16.

15 Ibid., 5-6.

16 W. Eichrodt,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vol. 1, 28.

폰 라트의 구약신학(1957)은 역사와 신학의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아이히로트와 유사하다.[17] 그러나 다른 한편 폰 라트는 역사 비평적 방법에 의해 재구성된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와 이스라엘이 야훼와 그의 행동에 대하여 그린 선포적 그림(Kerygmatic Picture)을 구별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역사와 신학을 구분하는 아이스펠트와 함께 한다. 하지만 역사를 구약성경신학에서 분리한 아이스펠트나 역사적 진술 보다는 조직적인 종합을 통해 규범적인 신학을 제시하려고 한 아이히로트와는 달리 폰 라트는 선포적 그림 곧 이스라엘의 신앙고백적 전승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전개되는가를 재진술하는 것을 구약신학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본다. 한마디로 폰 라트의 방법론은 이스라엘의 신앙고백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신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승들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역사적(diachronic 통시적)인 것이다.

폰 라트의 전승사연구가 이스라엘의 전승이나 신앙고백의 역사를 추적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발전을 탐구하는 종교사학파와 유사성이 있지만, 그는 단지 종교 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의 전개에 나타난 신학적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종교사학파의 역사 연구의 한계를 뛰어 넘고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폰 라트는 케리그마적 그림 즉 이스라엘의 신앙고백적 진술이 실제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역사비평주의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폰 라트가 말하는 '구속사' (Heilsgeschichte)에서 역사적 진정성은 중요하지 않고 단지 그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고백적 전통이 유효한 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실제 역사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 대한 관심은 다음에서 살펴볼 보수주의적 구속사 학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17 Gerhard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trans. D. M. G. Stalker, 2 vols. (New York: Harper & Row, 1962, 1965). 김성규는 폰 라트의 신학이 "역사(Geschite)와 신학(Theologie)의 이분을 극복했다"고 평가한다("현대 구약성서신학의 역사이해," 「장신논단」 8(2000): 16-17).

3) 구속사학파 (History of God's Salvific Acts)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구약성경신학은 비평주의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구속사학파는 비평주의에 맞서 성경의 역사적 진정성을 고수하되, 그 안에 기록된 구속사적 계시의 진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약신학 연구 역사의 초기부터 이와 같은 보수주의적 구약신학 연구가 있었는데 호프만(J. C. K. von Hofmann, 1810-1877)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18] 그는 구약 성경이 개념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교재가 아니라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집이며, 그 역사는 "완전한 실현을 목표로 진행되는 구속사"라고 했다.[19] 이런 관점에서 호프만은 두 가지 신적 영감의 결과 곧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것이 성경신학의 과제라고 제시했다.[20] 역사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찾고자 하는 호프만의 구속사적 해석은 종교사학파의 등장으로 쇠퇴했으나 최근에 복음주의 신학자인 월터 카이저(Walter Kaiser)가 이를 계승하고 있다.

카이저는 호프만의 보수주의적 구속사 신학 전통을 따라 성경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을 알게 하는 계시의 말씀"으로 보고 구약 성경에 기술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을 살피는 것을 구약신학의 과제로 여겼다.[21] 이를 위해서 그는 『구약성경신학』에서 '약속'

---

18 호프만은 따로 구약성경신학을 저술하지 않았지만 그의 책 *Biblische Hermeneutik* (1860)에서 보수적인 구속사적 성경해석법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판은 J. C. K. von Hofmann, *Interpreting the Bible* (Minneapolis: Augsburg, 1959). 헹스텐베르그(E. W. Hengstenberg)는 호프만 이전에 보수적인 반동을 일으켰는데 그의 구약신학 방법은 구속사적이라기 보다는 기독론적인 교리를 확립하는 규범적인 것이었다(*Die Christologie des Alten Testaments* [Berlin: L. Ohmigke, 1829]).

19 J. C. K. von Hofmann, *Interpreting the Bible*, 135.

20 폴 하우스(Paul R. House)는 호프만 외에 구속사적 구약신학을 시도한 초기 보수적인 학자들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구약신학』, 장세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37-43).

21 W. Kaiser,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78). 이 책을 기초로 하여 최근에 카이저는 더 확장된 구약신학서를 펴냈다(*The Promise-Plan of God: A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Grand Rapids: Zondervan, 2008]).

(promise)이라는 개념을 구약 신학의 중심점으로 놓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약속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시대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이와 같이 구속사의 흐름을 시대별로 고찰하는 방법은 폰라트의 전승사 연구와 마찬가지로 통시적(diachronic)인 것이지만, 카이저는 폰 라트와 달리 성경의 권위와 그 진술의 역사적 진정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복음주의 입장을 고수하며, 역사-비평적 방법이 아닌 신학적 구문론적 방법으로 구속사를 통찰한다. 또한 카이저는 '약속' 을 구약신학의 중심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신학을 기술한 아이히로트와 유사하지만, 아이히로트는 비교 종교학적인 차원에서 언약을 다루었으나 카이저는 성경 안에서 그 개념을 찾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아이히로트가 조직신학의 틀을 유지하면서 언약신학을 기술한 반면, 카이저는 약속의 역사적 발전을 규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역사를 중심으로 구약신학을 전개하는 세 가지 모델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자면 첫째, 역사 중심 연구는 구약성경 신학이 교의 신학과 구별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자칫하면 구약신학을 역사 연구의 아류로 남게 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왈키(Bruce Waltke)가 잘 지적했듯이 성경신학은 신학의 하나이지 역사의 일부가 아니다.[22] 둘째, 역사 중심 연구는 본문 이면의 역사 혹은 본문이 증거하는 역사적 사건을 밝히는데 주력하므로 정작 구약신학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구약성경 자체 즉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덜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사실 보도가 아니라 선포요 해석이다. 이에 대해 하워드는 (D. M. Howard)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계시적 활동들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 그 자체가 계시이다." 고 분명히 말한다.[23] 또한 세일해머(J. Sailhamer) 역시 "확실히 그것은 역사이지만 역사 이상이다. 그것은 역사에 대

22 Bruce K. Waltke, and Charles Yu. *An Old Testament Theology: An Exegetical, Canonical, and Thematic Approach* (Grand Rapids: Zondervan, 2007), 39.

23 D. M. Howard, *Old Testament Historical Books* (Chicago : Moody Press, 1993), 37.

한 영감된 해석(an inspired interpretation of history)이다."고 증거한다.[24] 데이비스(P. R. Davies)도 역사와 역사적 진술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5] 즉 '역사'는 과거 사건들의 연속((the events of the past as a *continuum*)이지만, '역사서'는 그 사건들에 대한 선택적 진술(the selective telling of those events)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적 사실과 기록된 역사의 구분은 최근의 구약신학을 주도하고 있는 문학적 접근법과 무관하지 않다.

2. 문학성: 본문 중심 연구(Text-centered Approach)

가블러 이후 거의 2세기 동안 역사 연구 혹은 역사 비평주의가 구약신학의 주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역사 중심 연구에서 본문 중심 연구로, 또는 통시적(diachronic) 방법에서 공시적(synchronic) 방법으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26] 본문 이면의 역사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최종 본문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 새로운 연구 방식은 비록 그 역사는 길지 않지만 그 동안 비평주의와 보수주의를 막론하고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나왔다.[27] 앞에서 역사 중심 연구에서 그랬듯이 필자는 본문을 중심으로 구약신학에 접근하는 세 가지 모델들을 살펴보자.

---

24 John Sailhamer,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95), 20. 김지찬의 "구약 내러티브의 역사성: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서의 역사,"「신학지남」255(1998), 28-55 역시 유사한 입장이다.

25 J. W. Rogerson and P. R. Davies, *The Old Testament World* (1989), 218; cited by V. P. Long, "Old Testament History: A Hermeneutical Perspective," *NIDOTTE* vol 1: 87.

26 T. Longman III, "The Literary Approach to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Promise and Pitfalls," *JETS* 28(1985): 385.

27 폴 하우스는 뮐렌버그(James Muilenburg)를 위시하여 현재 본문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최근의 문학비평의 역사에 대한 개괄적인 고찰을 제공하고 있다("The Rise and Current Status of Literary Criticism of the Old Testament," in *Beyond Form Criticism: Essays in the Old Testament Literary Criticism*, ed. Paul R. House (Winona Lake: Eisenbrauns, 1992), 3-22.

1) 신비평주의 (New Criticism)

합리주의 영향 아래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추구하던 기존의 역사 비평주의는 저자 혹은 본문 원래의 역사적 배경을 탐구함으로써 저자의 의도 혹은 본문의 원의미(what the text meant)를 파악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 실증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본문 이면의 역사를 찾지 않고 혹은 저자와 상관없이 본문 자체를 분석하여 그것이 현재 의미하는 바(what the text means)를 찾는 신비평주의(New Criticism)가 등장했다.[28] 과거의 비평주의가 순수 역사 연구를 통해 본문 이면의 역사를 재구성(historical reconstruction)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반면, 신비평주의는 성경을 하나의 문학작품처럼 읽으면서 순수 문학 연구를 통해 본문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 것이다.

신비평주의는 본문 자체의 분석에 충실하면서 본문의 구조, 주제, 모티프, 문체, 비유, 전조, 반복, 서술 관점 등 문학적 기교와 특성 연구 등 구약 해석에 다양한 해석학적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렌츠와 올슨이 잘 지적한 바와 같이 신비평주의 입장에 선 설화신학(narrative theology)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의 실제 역사성 사실 여부 보다는 오직 "성경의 문맥 안에서 설화라는 장르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29] 예를 들어, 프라이(Hans Frei, 1974)는 설화신학(혹은 서사신학; narrative theology)을 주창하면서 구약성경을 '역사 같은 설화'(*history-like* narrative)로 읽기를 제안한다.[30] 알터(R. Alter) 역시 성경을 '역사처

---

28 원래 신비평주의는 1940년대 영미 문학계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저자의 세계보다 작품 자체의 본문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 인물, 줄거리(plot) 등을 분석하는데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신비평주의에 입각한 구약성경 해석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David J. A. Clines and J. Cheryl Exum, "The New Criticism," in *The New Literary Criticism and the Hebrew Bible*, JSOTS 143 (Sheffield: JSOT Press, 1993), 11-25를 참조하라.

29 스탠리 그렌츠(Stanley J. Grenz), 로저 올슨(Roger E. Olson), 『20세기 신학』 (서울: IVP, 2000), 447.

30 Hans W. Frei, *The Eclipse of Biblical Narrative: A Study in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Hermeneu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1974). 내러티브 신학 혹은 설화(서사)비평의 범위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는 해석법을 다 신비평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박철현은 서사비평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함께 이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학자들의 문헌을 소개하고 있다("구약의 서사비평[Narrative Criticism]의 현재와 미래," 『감신성서학연구소 16회 공개세미나 자료집』).

럼 꾸며진 산문' (historicized prose fiction)으로 보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의 문학적 이야기로 읽어야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31]

제임스 바아(James Barr) 역시 구약성경을 하나의 이야기(story)로 간주하고 읽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신비평주의의 입장에 서고 있다.[32] 뿐만 아니라 바아는 성경의 자료들이 신학적이 아니라고 간주하며 어떤 신학적 압력도 없이 성경을 문학적으로 경험할 것을 권고한다.[33] 그러므로 신비평주의는 본문에 집중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탈(脫)역사적이고 탈신학적인 문학연구로 치닫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34] 이에 본문을 중심으로 연구하면서도 신학적 의의와 역사적 의의를 추구하는 방법론이 요구되는데, 비평주의 안에서는 적어도 아래에서 살펴볼 정경 분석법이 이런 요구를 충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정경 분석 (Canonical Analysis)

정경분석은 극단적인 신비평주의와 다른 각도에서 본문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신비평주의는 하나의 문학작품과 같이 성경의 본문을 다루지만 정경비평은 신앙공동체에게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최종 본문의 형태에서 그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나름대로 신학적인 가치를 찾으려 한다. 이와 같은 정경

---

31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0). 알터는 성경을 문학적으로 보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히브리 문학적 특징들에 주목한다.

32 J. Barr, "Story and History in Biblical Theology," *Journal of Religion* 56(1976): 1-17.

33 Idem, *The Bible in the Modern World* (London: SCM, 1973), 61; idem, *The Concept of Biblical Theology: An Old Testament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1999).

34 T. Longman III, "Literature, Interpretation, and Theology," *NIDOTTE*, vol. 1: 112. 그는 또한 "The Literary Approach: Promise and Pitfalls," 385-98에서도 문학 연구의 함정과 위험성을 다섯 가지로 지적하는데, 특히 저자의 의도를 무시한다든지, 또는 문헌의 외부 지시적 (external reference) 기능을 부인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위험을 경고했다. 김지찬 역시 "구약내러티브의 역사성: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서의 역사," 「신학지남」255(1998): 28-55에서 설화 혹은 서사를 허구로 보는 해석법에 반박하며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 변증한다.

분석법은 『위기의 성서신학』(*Biblical Theology in Crisis*, 1970)을 펴낸 차일즈(Brevard S. Childs)로부터 시작한다.[35] 차일즈는 먼저 자료비평, 양식비평, 편집비평 등 역사비평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성경의 본문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형성 과정을 추적하기 보다는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현재의 본문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서 본문(text)의 이면에 있는, 즉 신앙과 실천의 공동체에 의해 성경에 제시된 것과 동떨어진 사건들이나 경험들이 신학적 연구의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 차일즈의 방법론은 역사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또 성경의 명시적 기능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비평주의와 구별된다. 차일즈는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삶 속에 있는 사건들과 반응들에 대한 증거를 계속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문헌은 그 명시하는 바(ostensive reference)와 분리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36]

요약하면, 차일즈는 역사 비평적 방법들의 한계를 넘어서 본문 중심의 구약신학을 추구하면서도, 신비평주의와 달리 역사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차일즈의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신학적 가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신비평주의와 구분된다.[37]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와 신학을 통합한 구약신학자로 꼽히는 폰 라트의 전승사 연구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폰 라트는 전체를 다루지 않고 특정 전통에 중점을 두고 그 역사적

---

35 차일즈가 정경 분석법을 주창한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정경적 방법론이 제안되었으나 지면관계로 여기에서는 차일즈의 정경 분석법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자. 차일즈는 계속해서 정경분석에 근거한 구약 및 성경신학에 대한 책을 출판했다. *Old Testament Theology in a Canonical Context* (Philadelphia: Westminster, 1985);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London: SCM, 1992); *Biblical Theology: A Proposal* (Minneapolis: Fortress, 2002). 차일즈의 정경 분석법에 대한 소개가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 참고, 김이곤, "B. S. 챠일즈(Childs)의 성서해석 방법론," 「신학연구」 22(1980), 49-91; 장일선, "공시적 성서연구 방법으로서의 구약 경전비평 소고," 「기독교사상」 11(1988): 127-41; 장세훈은 차일즈의 정경 접근법을 클레멘츠와 렌토르프의 방법론과 비교하고 있다(『본문의 의미를 찾아서』 [서울: 그리심, 2007], 14-20).

36 B. Childs, *Old Testament Theology*, 6.

37 Ibid., 12.

발전을 연구한 반면, 차일즈는 성경의 한 주제나 단원이 현재의 정경 형태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혹은 다른 성경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가를 설명하려고 했다. 즉 전체 정경 형태를 중요시하여 각 권을 아우르는 보다 큰 범위의 정경 문맥을 살핀다.[38] 아울러 차일즈는 구약 성경을 하나의 완전한 구성체로 보면서 동시에 그것을 단독적으로 다루지 않고 성경 신학의 한 축으로서 곧 신약과의 관계에서 구약 정경의 신학적 의의를 논한다. 이와 같이 차일즈의 정경적 접근법은 여러 면에서 구약신학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공헌을 남겼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여전히 문서 형성의 역사를 전제하는 역사 비평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성경 본문의 역사적 진정성에 대해서도 비평적 입장에 서 있다.

3) 복음주의의 문학적/정경적 접근 (Evangelical Literary/Canonical Approach)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복음주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 본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현대 신학의 동향 변화는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비록 성경의 영감이나 권위로의 복귀는 아니라 하더라도 본문의 통일성을 전제로 한 성경 해석과 아울러 본문의 의미를 더욱 깊이 드러내는 다양한 시도와 도구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적 진정성에 대한 복음주의의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문학적 방법들을 적용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롱맨(Tremper Longman, III)은 자신의 소논문(1985)에서 극단적인 문학적 분석방법의 위험성을 경고하지만, 다른 한편 문학적 연구의 긍정적인 기능들을 설명함으로써 복음주의적 문학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39] 역사성과 문학성을 병행하여 구약을 이해하

38 예를 들어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 등 (Ibid., 13).

39 Tremper Longman, III, "The Literary Approach to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Promise and Pitfalls," *JETS* 28(1985): 385-98. 김정우 역시 "성경의 문학적 접근, 그 기여와 한계," 「목회와 신학」 22(1991, 4월): 64-74; 「구약해석학 논문집 I」(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5), 11-31에서 문학적 접근의 문제점과 기여에 대해 논하고 있다.

려는 롱맨의 시도는 Dillard와 함께 저술한 구약 개론서(1994)에 잘 반영되어 있다.[40] 여기에서 롱맨과 딜라드는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문학적인 분석을 하여 궁극적으로 신학적인 메시지를 찾는 방식으로 각 성경에 대한 개론적인 이해를 제시했다.

실제적으로 문학적인 접근법을 적용한 복음주의적 구약신학서들로서 주목할만한 연구가 최근 10여년 동안 존 H. 세일해머(1995), 폴 R. 하우스(1998), 그리고 브루스 K. 왈키(2007)에 의해서 차례로 출판되었다.[41] 이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성경의 권위와 역사적 진정성을 인정하는 복음주의 신학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차일즈의 정경 분석법을 복음주의 입장에서 수용하며 그의 역사 비평적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42] 그 중에서 하우스가 인정하듯이 "구약 신학 연구에 정경적 접근을 사용한 첫 번째 복음주의적 시도"인 세일해머의 작품을 살펴보기로 하자.[43]

세일해머는 구약신학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주로 구약신학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들을 네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논의하면서 하나의 복음주의적 구약신학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본문(Text)이냐 사건(Event)이냐"에 대해서 그는 본문을 택함으로써 본문 자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비평(Criticism)이냐 정경(Canon)이냐"의 문제는 앞의 문제와 연관되

---

40 Tremper Longman, III, and Raymond B. Dillard『최신구약개론』, 박철현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7).

41 존 H. 세일해머,『구약신학개론: 정경적 접근』(*Introduction to Old Testament Theology: A Canonical Approach* [Grand Rapids: Zondervan, 1995]); 폴 R. 하우스,『구약신학』(*Old Testament Theology* [Downers Grove: IVP, 1998]); 그리고 왈키의 책 *An Old Testament Theology: An Exegetical, Canonical, and Thematic Approach*는 아직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42 세일해머와 왈키는 이미 책 제목에서 정경적 접근 방식을 수용하고 있음을 공언한다. 하우스는 그의 책 1장에서 구약신학 연구의 역사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한 후 마지막에 자신의 방법론은 정경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밝힌다 (『구약신학』, 97-102).

43 폴 하우스,『구약신학』, 989.

어 있다. 여기에서 세일해머는 정경을 선택하여 본문 이면의 가상적인 역사를 재구성하기 보다는 최종 본문으로서 정경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서술적(Descriptive)이냐 고백적(Confessional)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세일해머는 성경을 일반 책과 같이 과학적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신앙적인 고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넷째, "통시적(Diachronic)이냐 공시적이냐(Synchronic)"에서 세일해머는 통시적 방법을 선택하여, 구약을 하나의 전체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들 각각의 견지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방식은 성경신학의 역사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칼슨(D. A. Carson)이 성경신학은 신학적이지만 그 서술방식이 역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다.[44]

III.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역사성과 문학성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구약신학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급진비평	온건비평	복음주의
역사성	Wellhausen	G. von Rad	W. Kaiser
문학성	J. Barr	B. Childs	J. Sailhamer

첫 줄의 벨하우젠, 폰 라트, 그리고 카이저는 역사를 중심으로 구약신학을 서술하려고 한 학자들이다. 둘째 줄의 바아, 차일즈, 그리고 세일해머는 최근의 해석학적 동향에 따라 본문에 초점을 맞추고 그 문학적 분석에 중점을 둔 학자들이다. 좌측의 벨하우젠과 바아는 복음주의 관점에서 볼 때 급진적이라

44 참고, D. A. Carson, "The Role of Exegesis in Systematic Theology," in J. D. Woodbridge & T. E. *Doing Theology in Today's World: Essays in Honor of Kenneth S. Kantzer* (Grand Rapids: Zondervan, 1991), 45.

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벨하우젠은 신학적 가치를 배제한 순수 역사 비평을 추구하고, 바아는 역사와 신학을 배제한 순수 문학적 비평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중앙의 폰 라트와 차일즈는 역사 비평적 전제를 갖고 있지만 적어도 신학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비평주의라고 할 수 있다. 우측의 카이저와 세일해머는 복음주의 신학자들로서 전자는 본문이 증거하는 구속사를 중심으로 구약신학을 전개하고, 후자는 역사 자체 보다 그 역사를 해석하는 계시로서 본문과 정경에 더 초점을 맞춘다.

이상의 관찰을 토대로 복음주의에 입각한 구약신학 방법론을 말하자면,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공감하듯이 우리는 역사성와 문학성 그리고 신학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연구를 해야 한다.[45] 즉 성경의 역사적 진정성을 전제로 하되 본문 이면의 역사 재구성, 역사 찾기가 아니라, 궁극적인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기록된 본문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에게 이 역사적 실재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약에 접근하는 구약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다 자세히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감으로 된 말씀: 역사성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책이다. 그런데 그 역사적 가치 혹은 역사적 진정성은 성경 신학 초기의 역사 비평주의와 현대의 문학 비평주의 모두

45 M. 스턴버그도 '역사,' '심미학'(審美學; aesthetics, i.e. 문학), 그리고 '관념학'(觀念學; ideology, i.e. 신학) 이 세 가지가 성경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Meir Sternberg, *The Poetics of Biblical Narrative: Ideological Literature and the Drama of Reading*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1985], 362). 이와 유사하게 라이켄도 성경을 하나의 문헌으로 제시하며 성경 연구를 위해 문학적 분석과 함께 역사적 신학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Leland Ryken, "Bible as Literature," in David S. Dockery et. al (eds), *Foundations for Biblical Interpretation* [Broadman & Holman: Nashville, 1994], 58). 김정우도 같은 맥락에서 구약성경의 역사서를 다루면서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개혁신학의 전통에 맞는 해석적 방법으로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연구법을 제시하면서, 문법적 해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학적 접근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구약통전, 상』 [서울: 이레서원, 2002], 36).

에게 도전을 받았다. 전자는 그 역사적 진술이 실제 역사와 다르다고 보고 이성적 사고와 연구를 통해 실제 역사를 재구성(reconstruction)하려 했고, 후자는 본문의 역사성을 무시하거나 부인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파괴(deconstruction)하려 했다. 그러나 세일해머가 잘 언급했듯이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실성 문제는 역사적 정확성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46] 그러므로 복음주의 신학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즉 신적 기원을 가진 정확 무오한 말씀' 이라는 분명한 입장에서서 성경의 역사적 진정성을 믿고 그 역사가 제시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2. 기록된 말씀: 문학성

성경은 신적 기원을 가진 것이지만, 사람에게 소통될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와 문학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 이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works)는 하나님의 말씀(words)을 통해 표현되고 있으므로 그 문학적 가치를 바로 파악하는 것은 그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김지찬이 잘 언급한 바와 같이 "문예성은 정확한 역사적 진술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정확한 역사를 오늘을 위한 교훈으로 만드는데 없어서는 아니되는 가치 표현의 채널"이다.[47]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문학적 특성을 잘 살펴야 한다. 영거(K. L. Younger) 역시 "성경 본문을 문예적으로 읽는 것이 어떤 역사적 재구성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48] 특히 구약 성경에는 그 장구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장르와 문학적 기교가 사용되었으므로 더욱 그렇다.

---

46 John H. Sailhamer, 『구약신학개론』,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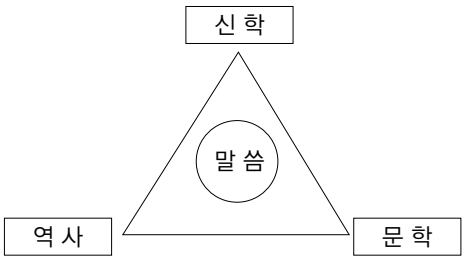
47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38-39.

48 K. L. Younger, "The Figurative Aspect and the Contextual Method in the Evaluation of the Solomonic Empire (1 Kings 1-11)," in *The Bible in Three Dimensions* (Sheffield: JSOT Press, 1990), 157.

3. 하나님의 말씀: 신학성

성경은 역사적 특성과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 기록이나 고대의 문학 작품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 으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분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신학 작업을 할 때 역사적 문학적 방법을 쓰되, 그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세대, 어느 문화에도 적용되는 신학적인 규범을 찾아야 한다.[49]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약 신학의 과제로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살피되,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을 믿는 복음주의 신학에 따라 '역사성과 문학성을 종합하여 신학적 함의'를 찾는 방법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50]



49 본문의 신학적 가치와 관련하여 필자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저자의 의도를 배제하고 본문의 자족성(self-sufficiency) 즉 본문 자체로 의미가 구성된다고 하는 신비평주의적 해석이나, 독자에 의해 의미가 창조된다고 하는 다원주의적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김상훈도 복음적 개혁주의 해석학의 원리를 설명하는 자신의 논문 "영감된 하나님의 책으로서의 성경과 개혁주의 해석학적 과제," 「신학지남」 271(2002): 122에서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는 "해석 방법이 하나님과 저자의 의도에 주목하게 하는가?" 혹은 "해석자나 독자의 주관적인 측면의 강조 보다는 본문 중심의 해석 노력을 요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독자의 입장을 부각시키는 해석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초점의 비중(우선순위)이 저자에게 가 있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고 있다.

50 딜라드와 롱맨은 역사와 문학, 그리고 신학의 삼중적 구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고 있다. "역사는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고, 신학은 역사적인 사건들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학적인 역사(theological history) 혹은 역사화된 신학(historicized theology)을 서술하는 본문들은 문학적인 예술품으로 묘사하는 것이 잘 어울릴 것이다" (Dillard & Longman, *Introduction*, 20).

〈참고문헌〉

김상훈. “영감된 하나님의 책으로서의 성경과 개혁주의 해석학적 과제.”『신학지남』 271(2002): 112-29.

김성규. “현대 구약성서신학의 역사이해.”『장신논단』 8(2000): 7-28.

김이곤. “B. S. 챠일즈(Childs)의 성서해석 방법론.”『신학연구』 22(1980): 49-91.

김지찬. “구약 내러티브의 역사성: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서의 역사.”『신학지남』 255(1998): 28-55.

박철현. “구약의 서사비평[Narrative Criticism]의 현재와 미래.”『감신성서학연구소 16회 공개세미나 자료집』.

장세훈.『본문의 의미를 찾아서』 서울: 그리심, 2007.

장일선. “공시적 성서연구 방법으로서의 구약 경전비평 소고.”『기독교사상』 11(1988): 127-41;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0.

Barr, James. “Story and History in Biblical Theology," *Journal of Religion* 56(1976): 1-17.

_____. *The Concept of Biblical Theology: An Old Testament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1999.

Carson, D. A. "The Role of Exegesis in Systematic Theology." Pages 39-76 in *Doing Theology in Today's World: Essays in Honor of Kenneth S. Kantzer*. Edited by J. D. Woodbridge & T. E. McComiskey. Grand Rapids: Zondervan, 1991.

Childs, Brevard S. *Old Testament Theology in a Canonical Context*. Philadelphia: Westminster, 1985.

_____.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London: SCM, 1992.

_____. *Biblical Theology: A Proposal*. Minneapolis: Fortress, 2002.

Clines, David J. A. and J. Cheryl Exum, "The New Criticism." Pages 11-25 in *The New Literary Criticism and the Hebrew Bible*. JSOTS 143; Sheffield: JSOT Press, 1993.

Eichrodt, Walther. “Hat die alttestamentliche Theologie noch selbständige Bedeutung innerhalb der alttestamentlichen Wissenschaft?" *ZAW* 47(1929): 83-91.

_____. “구약신학은 아직도 구약학에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20세기 구약신학의 주요 인물들』, 57-69.

_____.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ranslated by J. A. Baker, 2 vol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1.

Eissfeldt, Otto. “Israelitisch-jüdische Religionsgeschichte und alttestamentliche Theologie." *ZAW* 44 (1926): 1-12.

_____. "이스라엘과 유다의 종교 역사와 구약신학,” 42-56. 『20세기 구약신학의 주요 인물들』, 강성열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0.

Frei, Hans W. *The Eclipse of Biblical Narrative: A Study in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Hermeneu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1974.

Gabler, Johann P. "An Oration on the Proper Distinction between Biblical and Dogmatic Theology and the Specific Objectives of Each." Pages 492-502 in *The Flowering of Old Testament Theology: A Reader in Twentieth-Century Old Testament Theology, 1930-1990*. Edited by Ben C. Ollenburger et al. Winona Lake: Eisenbrauns, 1992.

Hasel, Gerhard F.『구약신학: 현대 논쟁의 기본 이슈들』. 김정우 역. 서울: 엠마오, 1993.

Hengstenberg, E. W. *Die Christologie des Alten Testaments*. Berlin: L. Ohmigke, 1829.

Howard, D. M. *Old Testament Historical Books*. Chicago: Moody, 1993.

Hofmann, J. C. K. von. *Interpreting the Bible*. Minneapolis: Augsburg, 1959.

House, Paul R.『구약신학』. 장세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_____. “The Rise and Current Status of Literary Criticism of the Old Testament." Pages 3-22 in *Beyond Form Criticism: Essays in the Old Testament Literary Criticism*. Edited by Paul R. House. Winona Lake: Eisenbrauns, 1992.

Kaiser, Walter.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78.

_____. *The Promise-Plan of God: A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Grand Rapids: Zondervan, 2008.

Longman III, Tremper. “The Literary Approach to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Promise and Pitfalls," *JETS* 28(1985): 385-398.

Moor, J. C. de (ed.). *Synchronic or Diachronic?: A Debate on Method in Old Testament Exegesis*. Leiden: E. J. Brill, 1995.

Prussner, Frederick C. and John H. Hays, *Old Testament Theology; Its History & Development.* Atlanta: John Knox, 1985;『구약성서신학사』, 장일선 역. 서울: 나눔사, 1991.

Rad, Gerhard von. *Old Testament Theology*. Translated by D. M. G. Stalker, 2 vols. New York: Harper & Row, 1962, 1965.

Rendtorff, Rold. "The Paradigm Is Changing: Hopes and Fears." *Biblical Interpretation* 1 (1993): 34-53.

Ryken, Leland, "Bible as Literature." In *Foundations for Biblical Interpretation*. Edited by David S. Dockery et al. Broadman & Holman: Nashville, 1994.

Sailhamer, John H. *Introduction to Old Testament Theology: A Canonical Approach* (Grand Rapids: Zondervan, 1995);『구약신학개론: 정경적 접근』. 김진섭 역. 서울: 솔로몬, 2003.

Smart, James D. "The Death and Rebirth of Old Testament Theology." *JR* 23 (1943): 1-11, 125-36.

Sternberg, Meir. *The Poetics of Biblical Narrative: Ideological Literature and the Drama of Reading*.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1985.

Vos, Geerhardus. *Preface to the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48.

Waltke, Bruce K. and Charles Yu. *An Old Testament Theology: An Exegetical, Canonical, and Thematic Approach*. Grand Rapids: Zondervan, 2007.

Younger, K. L. "The Figurative Aspect and the Contextual Method in the Evaluation of the Solomonic Empire (1 Kings 1-11)." In *The Bible in Three Dimensions*. Sheffield: JSOT Press, 1990.

〈Abstract〉

Historical and Literary Aspects of Old Testament Theology

- From an Evangelical Theological Perspective -

Yong-Sub Lim
Ch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rvey several studies of Old Testament theology (OTT) from an evangelical theological perspective focusing on how they deal with the historical and literary aspects of the Old Testament.

The first part investigates three cases which focus on the historical aspect of the Old Testament(OT). Julius Welhausen provided a picture of the development of the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His influence on OT study was very strong, but OTT was eclipsed by the full pledged historicism. Gerhard von Rad attempted to look for the theological value of the OT while tracing the history of Israel's traditions in his OTT. Yet his study is based on historical criticism and for him the kerygmatic picture of the OT is different from the real history. W. Kaiser Jr., an evangelical OT scholar, presented OTT through the history of God's salvific acts.

The second part is concerned with three cases of synchronic approach to OTT which highlight the literary aspect of the OT, moving beyond previous historical critical studies. James Barr is along with new criticism, putting emphasis on the text itself instead of the history behind it. However, he goes too far proposing to read the OT merely as a literary work or as a "story" without relating it to history or theology. With his canonical approach Brevard Childs also suggested that we should read the OT text as it is and take into account the canonical shape of the whole book. Yet Childs did not totally disregard historical criticism. John Sailhamer adopted the canonical approach in his study of OTT standing on an evangelical theological view to the Bible.

The final section provides a summary of the survey and a proposal of guide lines for doing OTT according to the evangelical conviction of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Scripture.

〈주제어〉 구약신학(Old Testament Theology), 역사성(historicity), 성서비평(biblical criticism)